



“다시 올게요” 아쉬운 귀경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광주승정역 플랫폼에서 한 부모가 설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고 귀경하는 자식들을 아쉬워하며 배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설 민심은 ‘정권교체’ 대세론·제3지대론 “더 지켜보자”

### 설 연휴 민심 들어보니

#### 野 최적 대선 후보 엇갈려

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설 민심은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하지만, 최적의 대선 후보를 놓고는 여전히 엇갈리는 모습이었다.

〈관련기사 3·4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기대 심리와 제3지대론 등 야권의 변수가

여전히 남은 만큼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망세가 대체적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던 ‘반문(反文) 정서’가 문 전 대표의 ‘대세론’ 속에 점차 열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에서 확실한 사람을 밀어주자’라는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광주·전남 바닥 민심에는 여전히 ‘반문 정서’는 강하게 남아있고, 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점에 있어 향후 대선 구도에 따라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지대론’, 빅텐트, 뉴DJP연합, 일부 후보 불출마, 탄핵 지연 등 각종 시나리오와 변수가 많아지면서 호남 표심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진석의 老練의 생각

② 이론 功 차고 있지 말라 ▶18면

KIA 타이거즈 임창용 5억 사인 ▶20면

광주시 동구에 거주하는 시민 최모(60)씨는 “문재인이 썩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정권교체가 우선인 만큼 현재 지지율 등으로 보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으나”면서 “야권에서 확실한 사람을 밀어줘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6)씨는 “야권 대선 주자 중에 아직 적합한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문 전 대표가 아직 호남 비전 등 대안이 부재해 확실한 호남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민들에게 이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정모(50·사업)씨는 “문 전 대표가 현재 감세이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는 이제 시작됐고, 막판까지 모른 만큼 야권의 선거 구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이모(47)씨는 “문재인 대세론은 향후 안철수 지지율 상승과 제3지대론 등 야권의 구도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제3지대론 등 야권의 지형 변화 등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적폐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서는 여전히 ‘반문 정서’가 견고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82)씨는 “우리 동네배들 대부분은 또 속을 수 없다. 문 재인을 밀어주면 대통령이 된 뒤에 또 한 번 호남이 소외를 당할 수 있다고 불안하고 있다”면서 “안철수가 아직은 뜨지 않고 있지만,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전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명절 심리가 선거에서의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해온 데다, 대선에서 호남 민심의 역할이 큰 만큼 이번 ‘설 밤상머리’ 지역 민심이 향후 대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광주·전남 설 민심을 놓고 전략적 접근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겨우 12.3%

부산은 27%·대구는 21.3%

균형발전 지방이전 취지 무색

■ 지방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014~2016년, 단위:%)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한 비율이 1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인 12.3%였다.

〈관련기사 2면〉

30일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임동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3년간 전국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률은 평균 12.0%에 그쳤다.

이들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비율 추이를 보면 2014년에는 8693명 가운데 10.2%인 888명이, 2015년에는 8934명 중 12.4%인 1109명이 지역인재였다. 지난해에는 1만18명 가운데 지역인재 수가 1333명으로 13.3%였다.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포인트 안팎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의 공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1.3%(527명 중 112명), 경북이 17.4%(1천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의 공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고 충북(8.5%·318명 중 27명) 등도 하위권이었다.

광주·전남도 지난해에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11.4%에 불과했다. 특히 2014년 11.2%에서 2015년 14.2%로 증가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의 한국식품연구원(5.0%), 세종의 한국교통연구원(3.2%) 등 지역인재 채용률이 5% 이하인 곳이 8곳이었다. 채용률이 10% 이하인 기관은 25곳으로 전체 109곳의 23%에 이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특검, 靑 압수수색·朴 대면조사 임박

현재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2월 탄핵심판 심리 본격 준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조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아 특검 탄핵 정국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현재는 이번 주 중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공방은 내달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현재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을 검토했다.

일단 현재는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하면 현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현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린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한편 다음 달 28일까지 1차 수사기간이 한 달 가량 남은 박영수 특검팀이 이미 예고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관련 벌리검토를 마무리하고, 대면조사 관련 조율에 나선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1961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